전북도교육청

기록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2011년부터 6회 연속 최고 등급… 기록물 관리 우수성 인정

전라북도교육청은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7년도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최우수인 '가' 등급에 선정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서비스 및 업무개선, 기록관리 중점사례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로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2011년부터 6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전북교육청은 전반적인 기록관리 현황이 우수하며 법령상 기록관리 준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기록관리 중점사례 분야에서 기록문화 쇄신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기반 마련 사례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1위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역사기록물 수집 강화를 위해 7064점의 오래된 사진기록물을 수집했으며 개인이 소장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572점의 역사 자료를 기증받았다.

기록물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총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5개교(칠보초, 선유도중, 영광여고, 백산고, 전주제일고)에 학교역사관을 조성했다.

또한 사진기록 전시 및 기록의 의미 관련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해 조직 내 기록 문화 확산에 나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기록관의 적극적인 수집활동 전개로 기록정보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 확대를 통한 조직 내·외부 기록문화 확산과 장기적 발전 방안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군산-부안 8개 학교서 수학나눔활동 펼쳐

전북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수학나눔활동을 지난 22일 부안과 군산 일대에서 펼쳤다.

이날 수학나눔활동은 금암초, 회현초, 야미도분교, 내흥초, 술산초 등 군산과 부안지역 8개 학교 13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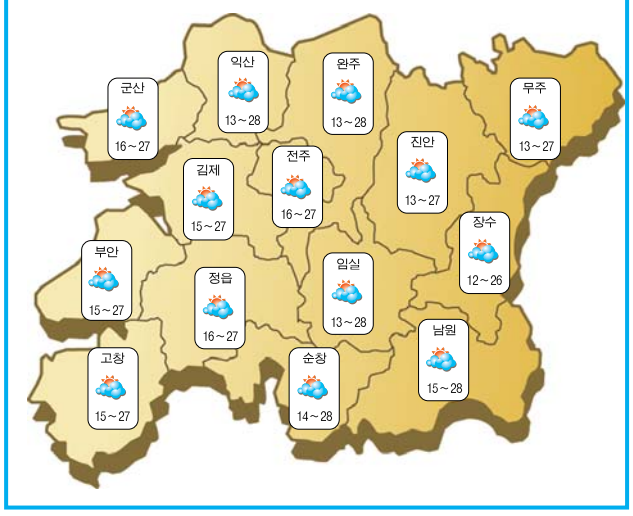
워크숍에서는 수학교육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이들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과 IQ 퍼즐, 만년달력,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운영사례 발표, 컨설팅, 수학산책 등의 프로그램이 이틀간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나눔학교 워크숍은 우수사례는 공유하고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는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9월 25일 월요일 해뜸 06:20 | 해짐 18:38 달뜸 22:47 | 달짐 10:39

날씨 최저기온 12~18도 최고기온 22~28도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이틀간의 일정 마무리

국·내외 로컬·환경운동가 대거 참여, 미래 비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펼쳐

'2017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가 지난 22일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참가자 모두의 희망을 담을 카드를 전 세계로 날려 보내는 폐막 퍼포먼스 '나비효과'를 끝으로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전주를 찾은 국내·외 로컬 및 환경운동가 40여명은 이번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 이틀간 지역의 미래에 대해 강연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올해 국제행사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돼 시민들이 돈보다는 사람,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행복을 위해 우리가 선택해야할 중요한 명제인 '지역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됐다.

'지역화를 위한 거버넌스'를 부제로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로컬푸드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금융 등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먼저, 해외연사 중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워크숍에 참여한 그웬돌린 홀스미스 미국 버몬트주 몬트펠리어시 공공체개발 기획관은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미국 등 지역화폐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구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용 게임을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해 열기가 뜨거웠다.

또한, 사이먼 리처드슨 호주 바이런 사이어 시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역에너지 정책 10개년 계획과 부탄왕국의 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정책수립의 도구로 도입한 사례를 소개했으며, 아냐 링백 로컬 퓨쳐스 프로그램 디렉터는 전 세계적인 식품과 농업의 선도적인 지역화운동 단체들을 소개하며 기업중심의 글로벌 성장경제에 저항하는 동시에 지역을 되살리는 해법을 강연했다.

사카타 유스케 일본 킨기대학 교수는 일본의 슬로라이프 운동의 맥락에서 전환마을(transition town)과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대체에너지 도입 사례를 워크숍에서 소개했다.

국내 초청 연사들도 주빌리은행과 서민금융의 방향, 지역사랑상품원 도입 사례, 전주푸드를 기반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구체적 사례 제시와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화와 사회적 경제의 가치가 확산되고, 지역화의 핵심 원리인 협력과 신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는 행동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이는 전주시를 더 위대한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2017 행복의경제학 국제회의'가 지난 22일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참가자 모두의 희망을 담을 카드를 전 세계로 날려 보내는 폐막 퍼포먼스 '나비효과'를 끝으로 이틀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취업 향해 나간다! 뛰뛰빵빵!'

전주시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미래설계를 돕기 위해 자동차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나섰다.

시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및 중장비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인 '취업 향해 나간다 뛰뛰빵빵'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주시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격증인 자동차 운전면허와 굴삭기·지게차 등 중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여러 자격증 중에서 실제 업무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격증이 그리 많지 않은데, 자동차 운전면허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센터에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진행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이번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진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참가한 청소년 모두가 자격증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초등 신규·저경력 교사 대상 워크숍 진행

전라북도교육청은 초등 신규·저경력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 22~23일 부안에서 1박2일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초등 5년 미만 저경력 교사와 교육지원청 초등전문직원, 희망 교사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교사들은 이틀 동안 '선배 수업엔 무엇이 있을까'를 주제로 한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수업실연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될 '마이크로티칭 수업 콘서트', 분임별 토의 형식의 '수업에 대한 다양한 고민 나누기', 그리고 워크숍 소감 발표를 겸한 '나에게로 보내는 수업공약'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특히 워크숍에 참여한 저경력 교사들에게는 멘토교사와의 만남, 토의 및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자신의 수업 철학을 정립하고 수업 고민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성을 키우도록 돕는게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